

제주사회복지신문

“최우선 과제...생애주기별 기초복지 보장”

200인 원탁회의, ‘10대 복지과제’ 선정

다양한 외부요인으로 급변하고 있는 제주사회에서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10대 복지과제’를 찾기 위한 원탁회의가 지난 달 17일 오후 2시, 제주오리엔탈 호텔에서 개최됐다.

이번 원탁회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제주복지공동체포럼, 제주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서귀포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가 공동주최했다.

제주 43개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100인과 사회복지현장 근무자 100인 등 총 200인이 참가한 이번 원탁회의는 10

인씩 소그룹을 이뤄 자유롭게 토론한 의견들을 현장에서 분석, 무선투표를 거쳐 결론을 도출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이날 원탁회의에서는 제주복지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한계를 파악하는 1부와 문제해결을 위해 최우선으로 해야 할 10대 과제를 찾는 순서로 진행됐다.

참여자들은 △제주형 복지기준으로 생애주기별 기초 복지 보장(23%) △복지 전달체계와 정보체계 혁신(16%) △양극화에 대응, 도민 삶의 질을 살피야(12%) △지속가능한 제주의 미래를 지켜가는 환경(10%) △민관이 함께하고 연결되는



▲ 지난 달 17일 오후 2시, 제주오리엔탈호텔에서 열린 ‘제주복지 10대과제’ 원탁회의.

제주복지 거버넌스(10%) △ 상호 소통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제주복지 공동체(9%) 등을 10대 과제로 선정했다.

고치환 회장(제주사회복지협의회)은 “도의회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회복지

협의회가 제주복지의 과제와 해결방안을 찾기 위한 자리에 모인 첫 사례”라며 “이번 원탁회의가 ‘함께’ 논의하고 ‘함께’ 풀어나가는 모범적인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제주도의회 의원연구모임

인 제주복지공동체포럼 강익자 대표의원은 “원탁회의를 통해 선정된 10대 과제가 정책화 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안전위원회 및 제주복지공동체포럼이 꾸준히 관심을 갖고 의정활동을 하겠다”고 전했다.

‘2016 제주나눔대축제’ 성료

지난달 22일 탐동광장... 도민·관광객 발길 꾸준



▲ ‘2016 제주나눔대축제’가 지난 달 22일 탐동광장에서 개최됐다.

나눔과 기부문화를 알리는 ‘2016 제주나눔대축제’가 지난 22일 탐동광장에서 열렸다.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회장 고치환)가 주관한 이번 축제는 제주지역에서 나눔과 기부에 적극 참여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단체와 기업, 시민사회단체 등 총 39개 기관·단체가 함께했다.

이날 비가 오는 날씨에도 불구하고 많은 시민들이 축제장을 찾아 다양한 형태의 나눔방법과 기부문화를 직

접 체험했다.

또한 기념식에는 기부문화 활성화에 앞장서온 유공자에 대한 표창과 △렛츠런파크 제주 △(주)제주식품산업협회 △전국한우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 △KT&G 제주본부 △(주)유한D&S의 기부물품 전달식이 이뤄졌다.

다음은 수상자 명단.

-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김종신 팀장(제주은행)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표창 △전학봉(사랑나눔푸드마

켓) △김은경 대표(꽃비나리는뜨락) △김성욱 대표(한우리유통) △제주유나이티드 FC(주) △(주)시와월드

☞ 관련화보 4면

지면소개

- 종합 2~3면
“사회적 약자 복지정책 추진 진단”
- 특집 4면
사건으로 보는 ‘2016 제주나눔대축제’
- 기획 7면
대한민국의 새로운 청렴문화 정착 기대
- 전면광고 8면
제7회 ‘명예의전당’ 등재자 추천안내

작지만 소중한 소원 이루기를 돕겠습니다.



JDC와 함께하는 ‘기적의 편지’ 사업

- 대상 도내 저소득가구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초·중·고등학생
- 지원한도 소원 내용에 따라 1인당 최대 100만 원(생계비, 의료비 등은 지원불가)
- 기본원칙 신청자가 직접 작성한 소원편지여야 하며 우편접수를 원칙으로 함.
- 접수기간 2016. 11. 1(화) ~ 2016. 11. 25(금)
- 접수처 제주시 청풍남 8길 12-1(화북1동)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기적의 편지’ 사업 담당자 앞

※ 자세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홈페이지 협의회소식 ‘공지사항’ 에서 확인해주세요.

문의 :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064-702-3784)

“사회적 약자 복지정책 추진 진단”

도민 안전 대책 점검
교통혼잡·주차난 해소
분야별 복지정책 감사



김용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위원장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김용범 위원장입니다. 가을이면 해마다 맞이하는 행정사무감사입니다만, 보건복지안전 위원장으로서 맞이하는 행정사무감사는 더욱 특별한 것 같습니다.

저희 위원회 여섯 분이 함께 도민의 안전과 복지를 중심에 두고 집행부의 한해 사업을 점검하고 향후 개선방안에 대해 주문할 예정입니다.

무엇보다 태풍 차바로 인한 피해 상황에 대한 재발 방지 대책을 집중적으로 다룰 예정입니다. 도민 피해가 반복되고 있는 사항인 만

큼 피해에 대한 원인을 진단하고 향후 도민 안전 대책에 대한 점검이 필요합니다.

또한 도내 교통혼잡과 주차난이 도민 불편을 가중시키고 있어 이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특히 대중교통체계 개편 및 차고지증명제의 조속한 시행이 필요하고, 이면도로에 대한 지속적인 주차단속으로 도심지에서 자가용 사용을 억제하는 방안

등에 대해 검토중입니다. 우리사회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만큼 소외계층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정책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는지 점검할 계획입니다.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여성, 다문화가족 등 분야별로 복지정책을 진단하고 부족하거나 잘못된 정책 입안 및 시행에 대해서는 대안을 제시하고 개선을 주문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도민 안전 대책 수립, 교통 및 주차난 해소 방안 마련, 사각지대가 없는 복지구현 등 도민의 삶의 향상될 수 있도록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연놀이전문지도사 양성교육 수료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 부설 여성장애인 어울림센터(임윤정 센터장)는 2016년 역량강화 및 권익옹호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달 4일부터 7일까지 4일간 자연놀이전문지도사 양성교육을 진행해 26명을 수료시켰다.

제주녹색환경지원센터(조은일 센터장)의 지원을 받아 이뤄진 이번 교육은 환경교육에 관심 있는 여성장애인 및 장애가족을 대상으로 자연환경의 이해와 제주지역의 자연환경 특성에 관한



▲ 지난 10월 7일, 자연놀이전문지도사 양성교육 수료 기념촬영.

이론 및 실기수업으로 진행됐다.

교육을 주최한 임윤정 여성장애인 어울림센터장은 “장애, 비장애인의 환경서

비스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기회였다”며 “기관 협약을 통해 지속적인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복지사각지대 우리가 찾아가요, 이동복지관

제주특별자치도가 지원하고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관협회(회장 윤흥기)가 주최하는 ‘찾아가는 이동복지관’ 우도편이 제주순복음종합사회복지관(관장 조영숙) 주관으로 지난 10월 6일 우도면사무소의 지원과 지역내 사회복지기관들의 참여로 진행됐다(사진).

지역 주민과 봉사자 등 약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우도 체육관에서 진행된 행사는 주민들에게 맞춤형 문



화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관계자는 “앞으로도 도내 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사각지대에 놓인 지역주민들에

게 필요한 문화복지 서비스를 꾸준히 제공해 주민들의 삶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많은 노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청소년 정신건강문제 예방 교육

제주시보건소, 부모아카데미 실시



제주보건소(소장 송정국)와 제주시정신건강증진센터(센터장 정영은)는 아동학대 및 아동·청소년 정신건강문제를 예방하고, 건강한 부모 자녀관계를 이뤄 자녀를 보다 건강하게 양육할 수 있도록 돕는 부모아카데미를 실시하고 있다(사진).

부모아카데미는 자녀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부모를 대상으로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를 초빙하여 건강한 부모의 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돕

고 자녀의 정신건강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제주시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진행하는 부모교육 프로그램이다.

매월 넷째 주 화요일마다 제주대학교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소아청소년 전문의 등 관련분야 전문가를 초빙하여 <효과적인 칭찬하기>, <우리아이 또래관계 돕기> 등의 다양한 주제로 부모교육을 실시해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모들에게 양육 기술과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758@1377 푸드마켓 FOOD MARKET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나눔”

10월 기탁 현황

- ▲금강수산유통=수산물 32kg ▲금강축산유통=축산물 251kg ▲금산서당골=돈갈비 146.5kg ▲김치원=김치 10kg ▲꽃비나리는뜨락=떡 267개 ▲던킨도너츠 제주외도점=도너츠 297개 ▲동원F&B제주지점=동원식품 4,036개 ▲모양=제과류 19봉 ▲빠라빠빵=식빵등 159봉 ▲서문식품=두부 432모 ▲암암영농조합법인=빵 66봉 ▲유진상사=오투기식품 2,011개 ▲이든이네=건멸치 9kg ▲일성식품=만두 60봉 ▲자연드림 이도점=빵 84봉 ▲제주보리촌=보리빵 800개 ▲제주의소리=간식류등 595개 ▲진영상사=아이스 과일 1,960개 ▲갯어클락=식빵 11봉 ▲행복나눔마트 노형점=주방세제 80kg ▲행복나눔마트 오라점=빵 363봉

• 기탁문의 : 사랑나눔푸드마켓 • 문의전화 : 064-758-1377

사회복지협의회 2016년 9월 후원금 현황 (단위 : 원)

구분	후원금수입	후원금 사용액
재가결연후원	280,000	2,340,000
난치병환아후원	65,000	0
자원봉사후원	4,280,000	428,000
복지사업후원	975,000	16,548,600
푸드마켓후원	2,875,000	428,630

* 후원자님들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발행안내

- 발행인 : 고치환
- 편집인 : 고경운
- 등록번호 : 제주라 01010
- 창간일 : 2007년 9월 1일
- 발행처 :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 주소 : 제주시 청풍남 8길 12-1
- 편집위원실 : 070)4726-8826
- 편집디자인 : 디자인리더제주

사회복지인 청렴실천 결의대회 개최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회장 고치환)는 지난 달 6일 제주농어업인회관 대강당에서 '사회복지인 청렴실천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가 주최·주관한 이번 행사는 지난 9월 28일 시행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과 관련하여 도내 사회복지계의 청렴실천을 다짐하고 제주 지역사회 청렴문화 조성에 앞장서고자 마련됐다.

도내 17개 사회복지직능단체장 및 근무자 200여명이 참석한 이번 결의대회에서는 청렴실천 결의문을 낭독하고, 사회복지직능단체장이 대표로 서명한 '청렴실천 서약서'를 이은희 제주특별자치도 보건복지여성국장에게 전달하며 청렴실천 결의



▲ 지난 달 6일 농어업인회관 대강당에서 도내 17개 사회복지직능단체장이 이은희 보건복지여성국장에게 청렴실천서약서를 전달했다.

를 다졌다. 이어 진행된 청탁금지법 교육에서는 문경진 제주특별자치도 청렴감찰관이 강사로 나서 청탁금지법의 추진배경, 제정과정, 제정의 의, 주요내용 등 직무수행 과정에서 일어나기 쉬운 위법사항에 대한 사례위주의 내용을 전달해 참석자들의

이해를 도왔다. 고치환 회장은 "이번 대회는 청렴한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한 국민적 노력에 맞춰 사회복지계에서도 청렴실천을 결의함으로써 사회복지현장은 물론 제주지역사회 청렴문화 조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독서의 계절, '꼬마도서관'과 함께

제주가정위탁지원센터(관장 강철남)는 지난 달 10일, 연동에 위치한 삼다공원(신제주R)과 제46호 어린이공원(남녕교 옆)에 '꼬마도서관'을 설치했다.

'꼬마도서관(The Little Library)'은 별도의 도서관 건물을 만들거나 사용하지 않고 우편함 크기의 나무모형을 만들어 책을 넣고 무료로 대여하면서 함께 책을 읽는 방식이다.

2009년 미국에서 처음

시작된 것으로 알려진 꼬마도서관은 우리나라에서는 2014년 대구의 한 시민이 지역 산책로에 설치하면서부터 알려지기 시작했다.

제주가정위탁지원센터 강철남 관장은 "이번 꼬마도서관 설치로 일반 시민들이 쉽게 책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독서문화 확산에 도움을 줄 것이다"며 "이번 연동지역을 시작으로 제주 전지역에 확대 정착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제46호 공원(남녕교 옆)에 설치된 꼬마도서관2호 앞에서 시민들이 책을 들어 포즈를 취하고 있다.

ssn 제주사회복지협의회 소식

사랑의 집고쳐주기 - 러브하우스 5호 탄생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회장 고치환)가 주관하고 도내 인테리어 업체 한샘리하우스 제주(대표 이승규)가 시행하는 '러브하우스-사랑의 집고쳐주기'가 지난 달 29일 서귀포시 하원동 리모(28)씨 집에서 진행됐다(사진).

이날 현장에는 서귀포시 주민복지과, 자원봉사자, 한샘리하우스 직원 등 32

명이 자원봉사 활동으로 구슬땀을 흘렸다. 도배와 씽크대 및 장판교체, 방수공사로 예정됐던 공사는 리모씨의 어려운 사정을 알게 된 이승규 대표의 지원으로 보일러 교체 및 욕실 가스순간온수기 설치까지 추가로 이뤄졌다.

올해 2월에 처음으로 실시된 '사랑의 집고쳐주기' 사업은 주거환경이 취약한



도내 저소득가구를 선정해 위생적이고 안정적인 보금자리를 제공하며 격월 단위로 실시되고 있다.

한국마사회 제주지역본부, 어려운 이웃을 위해 계속 달린다

한국마사회 제주지역본부(본부장 최원일)의 제주도내 어려운 이웃을 위한 기부가 끊이지 않고 있다.

마사회 관계자들은 지난 달 15일 제주도내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사용해 달라며 십시일반 모은 기부물품을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제주광역푸드뱅크(회장 고치환)에 전달했다(왼쪽 사진).

기부물품은 제주마주협회가 라면 20박스, 강태민 마주가 라면 42박스, 조교



사 협회가 라면 10박스, 기수협회가 과자 10박스로 300만원 상당에 이른다.

이번 전달식은 '식품나눔 캠페인' 사업의 일환으로 도내 푸드뱅크·마켓 이용자를 위해 2000만원 상당의 물품을 먼저 기부한 뒤 이어진 것으로 더욱 의미가



있다. 이에 앞서 한국마사회 제주지역본부는 지난 달 20일 제주시 동문시장에서 전통시장활성화 캠페인 3차 전달식을 갖고 저소득가정 150세대에게 1500만원 상당의 재래시장 상품권을 지급한 바 있다.

광역푸드뱅크 운영위원회 발족

도내 식품기부액 15억원 달성보고회 진행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제주광역푸드뱅크(회장 고치환)는 지난 달 13일 협의회 바람소리홀에서 운영위원회 발족식을 개최했다(사진).

운영위원회는 도내 기업체 대표, 담당 공무원, 사회복지 관계자 등 기부식품제공사업의 취지에 동참하고자 하는 1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었으며, 제주지역사회 각계 인사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기부식품제공사업 추진에 대한 운영 및 홍보 등 관련 사항에 대한 자문 활동을 하게 된다.

초대위원장으로 선출된

박경섭 위원장(㈜동부건설 대표)은 "도내 기업과 도민을 대상으로 기부문화화를 알리고 나눔에 동참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활동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이날 발족식에서 도내 식품기부액 15억 달성 보고회도 함께 진행됐다. 지난 1998년 제주지역에서 기부식품제공사업이 시작되고 14년만인 2012년 연간 식품기부액 10억원을 달성한 이후 가장 빠른 기간 내 식품기부액 15억원을 달성한 광역푸드뱅크에서는 올해 식품기부액 20억원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사진으로 보는 '2016 제주나눔대축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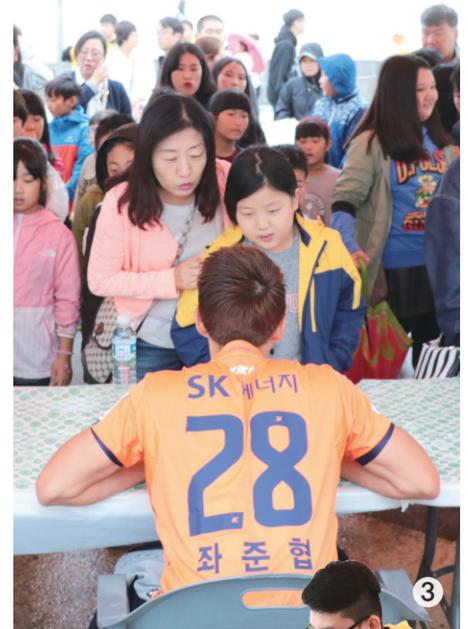
나눔의 씨앗으로 희망을 꽃 피우나

일상생활 속에서 실천 가능한 다양한 형태의 나눔과 기부문화를 소개하고 체험하는 제주나눔대축제가 지난 달 22일(토) 탑동광장에서 열렸습니다.

비가 오고 바람이 부는 곳도 날씨도 '나눔의 씨앗으로 희망을 꽃 피우는' 우리들을 어찌지는 못한 하루였습니다.



- ① 기부 받은 물품으로 열린 '아름다운가게와 함께하는 나눔장터'.
- ② 기부문화유공자에 대한 시상식.
- ③ 나눔대축제장을 찾은 시민들을 위해 제주유나이티드 선수들이 팬사인회를 개최했다.
- ④ '꽃자왈사람들 - 야생화 나눔' 재활용화분 만들기 체험.
- ⑤ '더희망제주-뚝뚝뚝 목공 이야기' 수납장 만들기 체험.
- ⑥ 시민들이 직접 기부한 책으로 열린 '나눔도서관'에서 시민들이 책을 고르고 있다.
- ⑦ '플로베-나눔카페' 참여자들이 준비한 피켓을 들어 부스를 홍보하고 있다.



소/식/마/당

2016년 가족캠프 “행복.UP!”



제주가톨릭장애인주간보호센터(원장 김정숙 수녀)는 지난 9월 30일부터 10월 1일까지 1박 2일의 일정으로 부모님과 함께하는 가족캠프를 다녀왔다.

더마파크 마상쇼 관람, 성김대건 신부 제주표착기념관 방문, 순례길 걷기 등 몸과 마음의 힐링을 준 이번 캠프는 다양한 레크레이션과 단체게임을 통해 가족들이 화합할 수 있는 뜻깊은 자리를 제공했다.

HAPPY 팸! 이심 <전심



제주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장 김정우)는 지난 달 8일부터 9일까지 1박2일의 일정으로 다문화가족캠프 ‘HAPPY 팸! 이심 <전심’을 진행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지원을 받아 이뤄진 이번 캠프는 총 11가정 40명의 다문화가족들이 함께해 다양한 레크레이션과 서커스관람, 카펠리아 힐을 산책하며 가족사랑을 더욱 돈독히 하는 시간을 가졌다.

가족 나들이 Happy Family Day



제주장애인요양원(원장 정석왕)은 지난 9월 8일, 이용자와 이용자 가족들이 함께 참여하는 가족나들이 ‘Happy Family Day’를 제주 장애인평생교육센터에서 실시했다.

정 원장은 “이용자와 이용자 가족, 직원들이 함께 친밀감을 형성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다”며 “가족애(愛)를 느낄 수 있는 프로그램을 더 많이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노인학대예방캠페인



제주특별자치도노인보호전문기관(관장 김선희)은 지난 9월 29일 서귀포시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30일 제주시 한라체육관에서 노인학대예방 홍보캠페인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노인학대의 심각성과 적극적인 신고의 중요성을 알린 이번 캠페인은 도내 어르신을 대상으로 24시간 노인학대신고전화 1577-1389 안내와 함께 홍보물을 전달했다.

도자기 빚기 체험 교육



제주원광재가노인복지센터(센터장 양지혜)는 지난 9월 26·28일 양일간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애월체육관에서 도자기 빚기 체험 및 교육을 실시했다.

어르신들의 문화 소외감을 해소하고 보다 폭 넓은 문화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된 이번 행사는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이 단순 소득보전을 위한 사업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개선하고자 마련됐다.

마음이 기억하는 여행



창암교육활동센터(원장 박영재)의 이용자, 직원, 자원봉사자 등 32명은 지난 9월 21일~23일, 2박 3일의 일정으로 대구지역 현장견학을 다녀왔다.

핀란드 국립오페라 단원 바리톤 한동훈씨와 카페 더 핀란드의 후원으로 이뤄진 이번 도외견학은 새로운 지역을 체험하고 타지역 구성원과의 만남을 통해 사회성을 발달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됐다.

부모교육 드라마 상담 진행



온새미로 지역아동센터연합(이호, 용담, 늘푸른, 봉아름, 우리동네 지역아동센터)은 지난 9월 13일부터 6회기 과정에 학부모 교육드라마 상담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2016년 복권기금 아동청소년 심리정서사업’의 한 부분으로 부모와 자녀관계 개선에 목적을 둔 이 프로그램은 맘사랑 심리센터에서 진행되며 참가자들의 호응도가 매우 높다.

“신통방통공연단과 즐겨보세”



정혜재활원(원장 이흥기)은 제주 문화예술재단 지원으로 2016 장애인문화예술교육사업 ‘신통방통 공연단과 즐겨보세’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지난 달 9일 서귀포관광극장에서 지역사회주민 100여명을 대상으로 국악, 댄스, 난타 등 다양한 공연을 선보인 이 프로그램은 장애인의 잠재된 예술적 역량 개발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아름다운 동행 행복한 나들이



새마을교통봉사대 제주지역대(대장 김인구)는 29일 사회복지법인 혜정원 아가의 집(시설장 박두현) 장애아동 38명과 교사, 자원봉사자, 교통봉사대원 등 1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도내관광지를 둘러보는 ‘함께해요! 아름다운 동행 행복한 나들이’ 행사를 가졌다.

이날 나들이는 30여대의 봉사 차량을 이용해 서커스 관람, 실내 테마파크 및 낙타트레킹을 체험했다.

엘린, 기능경진대회 최우수상



중증장애인직업재활시설 엘린(원장 한봉금)은 지난 9월 28일~30일 서울코엑스에서 열린 ‘2016 전국 건물위생관리 기능경진대회’에 참가해 최우수상을 수상(조영우 팀장)했다.

한원장은 “20여개의 업체가 참가해 실력을 겨뤘다”며 “우수한 성적을 낸 직원들께 감사드리며 더 높은 기술력을 갖출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춘강’ 지역사회공헌활동



사회복지법인 춘강(이사장 이동한)은 지난달 22일 구좌읍 평대리에서 해안가 환경정비 및 의료봉사 사회공헌활동을 펼쳤다.

지역사회 나눔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2010년부터 지역사회 나눔경영을 실시하고 있는 춘강은 매년 2회 제주도내 읍·면 지역을 방문해 꾸준한 사회공헌활동을 펼치고 있다. 평대리는 지난 2011년 춘강과 ‘1사1촌’ 결연을 맺은 지역이다.

시명난다! 2016문화체험



제주시니어클럽(관장 황영애)은 노인일자리 및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에 참여한 1500여명의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2016 문화체험활동’을 실시했다.

일 체험인원을 400명 정도로 제한해 총 5회에 걸쳐 진행된 이번 프로그램은 중문관광단지내 제주국제평화센터관람 및 삼바 두 브라질 공연 관람으로 구성되어 어르신들께 여가활동을 제공했다.

시론

주민자치위원회, 중요한 도민행복 창출의 공간

무척 궁금했다. 현장 사회복지인들은 제주복지 최우선과제를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그리고 시원했다. 숙의토론 과정을 통해 명쾌하게 그 과제가 정리되었기에. 머릿속에서 맴돌던 물음표가 10가지 의제로 정리된 것은 숙의형 민주주의라고 할 수 있는 원탁토론 덕이다.

숙의형민주주의, 원탁토론

며칠 전 도의회와 사회복지협의회 등 4개 기관에서 공동 주최한 원탁회의가 그것이다. 도내 복지전달체계의 구심이라 할 수 있는 200명의 토론자들은 사회복지현장 활동가와 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이다. 이들은 사전 질문지를 통해 청취된 현안을 중심으로 두 시간 여 자유토론과 투표표를 통해 최우선 과제로 생애주기별 기초복지 보장을 뽑았다. 다음으로 사회복지전달체계 개혁, 지속가능한 환경(생태)도 도민의 삶에 중요하다고 했다. 토론에 참여한 이들이 집단지성을 발휘하여 의제화한 것으로 저변에는 성장 중심

을 벗어나 도민들의 삶을 돌아야 하는 공감대가 있다고 본다.

스위스의 직접민주주의

스위스는 알다시피 직접민주주의를 시행한다. 광장민주주의라고 하는 주민총회는 1년에 한번 주민의 삶을 결정하는 도시계획과 과세결정권 등 묵직한 의제부터 실생활에 미치는 현안 의제를 던져 묻고 의결한다. 찬성과 반대캠페인이 벌어지며 토론의 과정에서 주민총의가 모아진다. 국민소득 8만 달러는 지역개발의 과정부터 참여하는 숙의형 의사결정과 주민자치의 힘이라는 평도 있다.

우리사회는 어떨까. 몇 백년 민주적 자치문화가 자리 잡은 나라와 고작 몇 십 년에 이른 나라 간 비교가 초라하지만 우리에게도 형식적 자치권은 부여되고 있다. 읍면동 자치위원회가 그 중 하나다. 하지만 자치위원회라기 보다 관의 시책에 적극 참여하는 관치위원회, 토착기득세력의 이익대변 회의라는 혹평도 있다. 주민자치위원들의 면면을 보

면 일면 동의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자치위원회는 실생활에서 주민의 복리를 논할 수 있는 제도로 보장된 훌륭한 공간이다.

우리의 현장은

이번에 선정된 10대 의제를 해결할 지근은 근무하는 사회복지현장이고 또 다른 지근은 주민과 일상적 접촉점에 있는 주민자치위원회라고 생각한다. 사회복지인들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우리의 지성을 발휘해 보면 어떨까. 지속가능 성장과 환경이 궁극적으로 도민의 행복을 높임을 토론에서 확인했으니 다양한 실천방법을 찾아보면 좋겠다. 우리의 현장은 거기에도 있다.



고 현 수
제주장애인권포럼 상임대표

기고

맞춤형보육, 더 많은 관심 필요



고 민 경
제주시 여성가족과

맞춤형보육이란 영유아들이 부모님과 충분한 시간을 보낼 수 있게 하자는 취지에서 새롭게 시작된 보육 유형으로 기존 단일한 형태의 0~2세반 영아에 대한 보육체계를 하루 12시간까지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는 '종일반' 과 하루 최대 6시간(월 15시간 긴급보육바우처 추가) 이용이 가능한 '맞춤반' 으로 이원화한 제도이다. 기존에는 맞벌이 가정이면 홀벌이 가정이면 아이를 종일반에 보낼 수 있었다. 그러다보니

가정의 필수적인 보육 수요와는 관계없이 어린이집 이용이 과도하게 늘어났고, 어린이집에서는 보육형태와 상관없이 동일한 금액을 정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어 이용시간이 짧은 아이를 선호하는 경향이 생겼다.

맞춤형보육은 이러한 과보육행태와 보육의 획일성으로 인한 부작용을 개선하고, 보육지원 혜택을 필요를 기반으로 배분하기 위해 시행되었다. 따라서, 맞춤형 보육의 틀 안에서는 맞벌이·다자녀·다문화 등의 경우에만 12시간 종일반 이용 가능하고 홀벌이 부부는 맞춤반을 이용해야 한다. 사실 부모가 가정에서 자녀를 돌볼 수 있는데도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기는 행위가 영아에게 신체적으로나 정서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맞춤형보육 시행 후 녀 달이

되어가는 지금, 어린이집과 학부모 모두 아직까지는 제도에 적응중인 것 같다. 종종 종일반 자격을 받을 수 없어 항의를 하는 학부모와 통화하게 되는 경우가 있지만, 제도에 대한 단순 비판만 있을 뿐 맞춤형 보육의 정의, 취지, 내용 등에 대한 관심과 제도를 이해하려는 모습을 찾기는 힘들다.

어린이집, 학부모의 적극적인 관심이 있을 때 맞춤형보육이 안정적인 정착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또한, 정부, 어린이집, 학부모가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이야기를 나누며 힘을 합쳐 나간다면, 맞춤형보육을 장점을 극대화 되고 단점은 보완된 제도로 만들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

맞춤형보육이 조기에 정착되어 어린이집과 학부모가 만족하며 이용할 수 있는 시기가 앞당겨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칼럼

저 나쁜 손

응접실 바닥에 웬 불쌍사나운 검불 하나가 내려앉았다. 손으로 주워 휴지통에다 버리려는데 손끝에이 무엇이 고물거려 움찔 놀랐다. 들여다보다 그만 놓아 버릴 뻔했다. 그것은 벌레의 가느다란 다리들이었다. 손가락으로 잡는 순간 끊고 달아난 것이다. 예닐곱 개쯤 될 것 같다. 살아서 꿈틀대는 게 징그러워 냅다 버렸다. 제 다리를 버린 그 벌레는 낫선 녀석이었는데 의자 밑으로 긴급 대피하고 말았다.

'버리는' 행위에 분별을 잃는 쪽은 사람이다. 못 쓸 것을 버리거나 하기 싫은 일에 손을 떼라고 누가 뭐라 할까. 꿈과 희망을 버리지 않되, 나쁜 성격이나 좋지 않은 버릇은 떼어내 버리면 좋다. 실현성 없는 욕망 따위도 일찌감치 버려야 한다.

버려서는 안될 것을 버리는 게 문제다. 살아있기를 단념하고 목숨을 버리는 일은 사람으로서 할 바가 못 된다.

버릴 것은 버리되 버려서 안될 것은 버리지 않아야 한다. 버릴 것과 버리지 않아야 할 것을 분간할 줄 알아야 하는 것이야말로 지혜에 속하는 일이다.

버릴 것과 버리지 않아야 할 것

'넘쳐나는 쓰레기로 제주 섬 몸살'이라는 신문 기사를 읽고 놀랐다. 봉개동 회천쓰레기매립장 포화 시기가 목전이란다. 소각장 시설도 가동능력이 1일 200t에서 150t로 떨어지면서 쓰레기 처리에 비상이 걸렸다는 것이다.

제주시청 홈페이지 '인터넷 신문고'에 올라온 한 환경미화원의 호소문이 눈길을 끈다. "청정 제주를 위해 시민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저희들이 아무리 열심히 뛰어도 시민들이 도와주지 않으면 도심지 쓰레기 대란을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종량제봉투 사용과 함께 쓰레기 분리 배출에 적극 동참해 주세요"

신문이 '치유되지 않는 도심 클린하우스'라는 사진을 곁들이고 있었다. 클린하우스가 쓰레기로 넘쳐 난장이다.

저 나쁜 손! 오늘도 찾길에서 담배꽂이를 픽 차창 밖으로 내던지는 곱지 않은 손을 보았다. 이동 중이 아니었으면 붙들어 호되게 질책했을 것이다. 일본을 혐오하다가도 몇 년 전에 다녀온 후꾸오까가 떠올라 낫 뜨거워지곤 한다. 그곳에는 길가, 호텔, 백화점 주변 할 것 없이 눈이 이르는 어디에도 꽂초 하나 휴지 조각 하나가 보이지 않았다. 거짓말 같이 깨끗했다.

우리 주변이 참으로 한심스럽다. 언제부터 한국 사회가 공중도덕 불감증에 오염됐는지 기가 막힐 노릇이다.

나와 남에게 묻는다. 왜 우리는 안되는가.



김길용
시인·수필가

대한민국의 새로운 청렴문화 정착 기대

청탁금지법, 2016년 9월 28일부터 시행



일명 김영란법이라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이하 청탁금지법) 이 지난 9월 28일 시행 제정되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펴낸 해설집을 통해 청탁금지법에 대해 알아보자!

청탁금지법은 통상 '3·5·10' 조항으로 요약된다. 이는 직무관련에 상관없는 금품수수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원활한 직무수행이나 사고·의례·부조 등 차원에 한해 3만원 이하의 식사 접대, 5만원 이하 선물, 10만원 이하 경조사비만이 허용된다.

금품에는 금전을 비롯한 교통, 숙박, 취업 알선 등 유형을 불문한 경제적 이득이 포함된다. 금품을 제공한 이와 수수자 모두 처벌되며 속인주의와 속지주의를 모두 채택해 한국 국적 국민이 외국에서 법 위반 행위를 해도 무조건 신고 및 단속 대상이다.

해당 법안이 적용되는 대상은 공무원, 공공기관 유관단체 임직원, 언론 종사자, 국공립·사립학교 교직원 본인 및 배우자 등이다.

부정청탁의 금지에 대해 알아볼까요?

네, 제3자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고질적인 청탁문화를 바꿔나가야 합니다

힘있는 사람에게 청탁하는 풍조를 개선하려는 건가요?

부정청탁의 행위유형

- 불법 인허가·면허 등 처리
- 법령을 위반한 행정처분·형벌부과외의 감경·면제
- 채용·승진 등 인사에 개입
- 공공기관의 의사결정 관여자에 선정·탈락외의 특혜
- 공공기관 주관 수상·포상 등의 선정·탈락에 개입
- 입찰·경매 등에 관한 직무상 비밀누설
- 보조금·기금 등의 배정·지원, 투자 등에 개입
- 공공기관이 생산·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의 비정상거래
- 입학·성적·수행평가 등 학교업무의 처리·조작
- 법령을 위반한 병역 관련 업무 처리
-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평가·판정 업무 개입
- 행정지도·단속 등의 대상 배제, 위반사항 묵인
- 사건의 수사·재판 등에 개입
- 특정인의 계약 선정 또는 탈락의 개입

위14가지의 유형에 대한 공직자들의 지위·권한 남용

금품등의 수수 금지에 대해 알아볼까요?

매번 감사합니다

이정도 금품이면 관함을 겁니다

안되요!! 주어서도 받아서도 안됩니다!

이것이 ~ 금품등 수수예

-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초과 매 회계연도 300만원 초과 금품등 수수
- 직무와 관련하여 1회 100만원 이하 금품등 수수
- 배우자가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은 경우
- 외부강의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 수수

원 본인 및 배우자 등이다. 일례로 제약업체에 다니는 A와 초등학교 교사 B, 전기 관련 공기업체 직원 C가 친구 사이라 해도 세 명이 함께 식사를 한 후 A가 식사비용을 모두 계산했다면 처벌 대상이 된다. 다만 같은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무기계약직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 등은 법 적용에서 제외되고 고등교육법상 겸임교원, 명예

교수 등은 '교원 외'로 구분돼 해당하지 않는다. 처벌도 기존 법령보다 엄격히 적용된다. 직무 관련 여부 및 명목에 상관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 원(연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수수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직무와 관련해 100만 원 이하의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정청

탁을 받은 공무원은 수수 금액의 2~5배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청탁금지법은 특정한 경우에 한해 금품 수수와 관련한 8가지 예외 사유를 구체적으로 두고 있다. 우선 공공기관이 소속 또는 파견 공직자 등에게 지급하거나 상급 공직자 등이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 등에게 제공하는 금품은 가

능하다. 또 원활한 직무수행이나 사고·의례, 부조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은 가액범위(3·5·10만원)에서 가능하며 민법이 정한 친족(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및 배우자)에게 받은 금품도 해당되지 않는다. 직무 관련 공식 행사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금품이나 기념품 및 홍보품, 경연·추첨을 통하여 받은 상품 등도 허용된다. 예외조항은 있다. 공개적으로 공직자 등에게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거나 법률관계 설명을 요구, 공익적 목적으로 민원을 전달하는 등의 경우 부정청탁이 아니다. 다만 공익적 목적은 엄격히 적용된다. 예를 들어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사람이 지방의회 의원을 통해 해당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업무 담당자에게 보조금 지급대상이 아님에도 보조금을 받게 해 달라고 청탁한다면 이는 부정청탁에 해당된다. <출처 : 국민권익위원회>

[찾아가는 서민 법률 주치의] 법률홍닥터 36

국민참여재판



황인철 변호사
제주지역 법률홍닥터

재판이 열리는 법정의 모습은 나라마다 차이가 있다. 영화나 드라마에 등장하는 장면만 놓고 보아도 이를 확인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와 미국 재판의 큰 차이점 중

하나가 '배심원'이었다. 배심원이란 일반 국민이 재판에 참여하여 판결에 영향을 주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 몇 해 전부터 우리나라에도 '국민참여재판'이란 이름으로 배심원 제도가 점차 확대되었고 이제는 영화나 드라마에도 자주 등장하여 우리에게 친숙한 제도가 되었다.

◆ 배심원의 역할과 한계

국민참여재판 제도는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8. 1. 1.부터 국민들이 배심원으로 형

사재판에 참여하는 새로운 형사재판제도이다. 배심원이 된 국민은 법정 공방을 지켜본 후 피고인의 유·무죄에 관한 평결을 내리고 적정한 형을 토의하면 재판부가 이를 참고하여 판결을 선고하게 된다.

미국의 제도와 큰 차이점이 있다면 우리 국민참여재판은 형사사건에 대해서만 가능하다는 것과 재판부(판사)가 배심원단의 결정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배심원은 원칙적으로 법관의 관여 없이 평의를 진행한 후 만장일치로 평결에 이르

러야 하는데, 만약 만장일치에 이르지 못한 경우 법관의 의견을 들은 후 다수결로 피고인의 유·무죄에 대해 평결할 수 있다. 배심원은 양형에 관한 의견을 밝힐 수 있지만 배심원의 평결은 법원을 기속하지 않고 권고적 효력을 가진다.

◆ 배심원 선정과정

모든 형사사건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되는 것은 아니고, 일정 대상 사건 중에서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여 신청하고 배심원의 안전에 대한 우려 등을 고려하여 법원이 대상 여부를 결정한다.

배심원은 소수의 부적격자를 제외한 일반 국민 중에

서 선정되는데 각급 법원별로 작성된 배심원후보예정자명부로부터 일정 수의 배심원후보자를 무작위로 추출하여 선정 절차를 거친다. 배심원이 되면 공정한 재판을 위해 여러 가지 제약을 받기도 하지만 약간의 수당을 받게 되고 무엇보다 사법절차에 큰 영향을 미치는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된다.

한자기 조심할 사항은 최근 배심원 선정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범죄가 발생한 것인데, 법원에서는 배심원 선정과 관련하여 전화, ARS 등으로 개인 정보를 묻거나 과태료 부과, 계좌 납부 등의 안내를 하지 않으니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겠다.

제7회 사회복지자원봉사 명예의 전당 주인공을 찾습니다

사회복지자원봉사 '명예의 전당'이란?

제주지역 사회복지발전에 기여한 자원봉사자들의 사기진작과 명예를 드높여 우리사회에서 귀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1. 추천대상

모범적이고 헌신적인 사회복지 자원봉사활동을 통해 제주 지역 사회복지발전에 기여한 자(현재 활동중인 개인, 타 계한 자원봉사자)

◎ 추천기준

- 봉사실적의 헌신성, 수공기간, 전문성, 창의성, 확산성 등 고려하여 아래 사항 중 한 가지 항목이라도 해당될 경우 추천가능
- 자원봉사 활동기간 20년 이상 활동중인 자
- 인증관리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 중 만 7년 이상 활동중인 자
- 인증관리 DB시스템(VMS)상 봉사시간 1,000시간 이상 활동한 자
- 인증센터 등록 자원봉사자 중 상기사항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모범적인 봉사활동 도중 심각한 상해를 입은 자

2. 추천자격

제주도내 자원봉사인증관리센터 대표

3. 제출서류

- 추천서, 공적요약서, 현지확인서, 개인정보이용동의서 각 1부
- ※ 추후 관련 증빙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4. 신청방법

- 신청기간: 2016. 11. 7(월) ~ 2016. 11. 25(금) 18:00
- 신청방법: 이메일(jejubokji@hanmail.net)제출
- 문의전화: 064)726-5786, 070-4726-8823

5. 명예의 전당 등재자 혜택

- 등재기념 순금배지 시상
- 등재기념패 증정
- 공적 및 활동사항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회관 '명예의 전당' 및 홈페이지 '명예의 전당' 코너를 통해 공개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우리 협의회 홈페이지(www.jejubokji.net)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1회 명예의 전당
김 영 순



제2회 명예의 전당
원 석 철



제3회 명예의 전당
변 명 효



제5회 명예의 전당
한 경 찬



제6회 명예의 전당
정 정 숙

※제4회 명예의 전당 대상자 없음